

일 대학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

김지미**, 홍성경**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패턴을 규명하고자 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한 일 대학의 재학생이며, 2016년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측정도구의 설문지를 통해 참여한 총 625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정준상관분석에 의해 변수군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도덕적 자아개념은 3.11 ± 0.34 , 윤리적 민감성은 3.92 ± 0.53 , 공감능력은 3.59 ± 0.38 이었으며,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정체성, 도덕적 자아행동, 자아수용성, 윤리적 민감성이 낮을수록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상상하기의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도덕적 자아개념을 보정하거나 대학생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 향상 전략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도덕,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대학생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사람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람다운 성품을 쫓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각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할 교육본연의 목적인 전인적 인간발달의 실현을 통한 인성 함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급기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섰다.

한국사회의 대학생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한 초기 성인기에 발을 딛고 있으나, 경쟁적 학습구조로 인해 이전 청소년기에 발달해야 할 도덕적 과업은 유보한 채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도덕적 문제점은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 시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경쟁주의로 인한 영향이 교육에도 파급된 결과로 보며 박정호[2]는 대학 교육에서 키워야 할 첫 번째 필요한 학생역량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태도 및 능력이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감의 태도와 능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재 대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타인을 이겨야 할 잠재적 경쟁자 혹은 적으로 보는 데 익숙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데 바빠서 타인을 배려하고 뒤처지는 동료를 지원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 사람 처지에서 이해해 주고, 생각 차이를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다[3]. 이 공감은 사회가 요구하는 친사회적 행동 즉 이타행동의 주요 형성기제 중 하나로[4] 건

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트(Hart)와 페글리(Fegley) [5]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관심을 언급하였다. 이런 도덕적 관심은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 내에 타인에 대한 관심 및 배려의 통합으로서 일종의 도덕적 정서 상태이며 이는 정서적 측면의 공감형성과 맞닿아 있다.

도덕성은 행위나 사고의 특성이라기보다 행위자의 특성이다. 행위자의 선한 의지(good will)는 한 개인 존재의 핵심인 정체성과 관련되며,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해, 구체적 행동에 대한 선택, 책임판단의 수립 등의 일련의 도덕적 사고를 통해 하나의 자아체계 내에서 일어난다[6]. 이러한 도덕성은 한 개인의 본질적 자아의 일부이며, 그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을 특징짓고 이렇게 형성된 도덕적 자아개념이 도덕적 판단과 선택의 원천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도덕적 실천의지가 되어 행동을 하게 한다[7].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인 도덕적 자아개념은 개인의 사람다운 행동 표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레스트(Rest) [8]는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하기까지 네 가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상황에 대한 해석인 ‘민감성’이고, 둘째는 특정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며, 셋째는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동기화’, 넷째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이다. 이 요소 중 민감성이란 윤리적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관련된 윤리적 이슈의 비중을 판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8,9]. 이러한 윤리적 민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초기단계에 필요할 뿐 아니라 최종 결정과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점도 있으나 전문직 영역에서 교육, 모델제

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접촉 그리고 성찰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10].

지금까지 대학생의 공감능력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자아인식, 타아인식, 부모의 수용, 삶이나 인생태도[11-13] 등이 공감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탐색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공감능력[14,15]은 사회생활이나 전문직에서 필요한 대인관계능력에 공감이 관여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공감능력의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와 공감능력은 도덕적 자아를 통한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구조에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통해 관계가 확인되었고[1],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치과의료, 경영, 교육, 회계, 사회복지, 간호 분야[16,17] 등에서 측정된 바 있으나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아와 도덕성의 통합이 예측되는 대학생 시기에 이들의 도덕적 실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자아개념과 도덕적 실천이라는 의사결정 초기와 마지막에 작용하는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인 공감능력과는 어떠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윤리적 민감성의 상황은 전문직 실무에서 경험하거나 일반적인 직업사회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대학생활동 관련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로 진출하기 전 대학생 활동에서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첫 번째 의미를 두며, 미래에 이들이 가지게 될 다양한 전문직업과 관련된 윤리적 민감성 형성에 기반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에 복합적인 관계 패턴을 파악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일 대학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예측변수와 기준변수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이 필요하므로 측정할 개별문항의 수에 4~5배 정도의 표본수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8]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의 표본수 625명은 총 84문항에 대한 표본수 확보로 충분하였다.

3. 연구도구

1) 도덕적 자아개념

도덕적 측면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그것에는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 자신에 대한 도덕적 평가, 자신에 대한 도덕적 기대, 자신의 도덕적 목표, 자신의 도덕 실천의지, 자신의 도덕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규정이 포함된다[7].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19]의 도덕적 자아개념을 서예숙[20]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도덕적 자아정체성’, ‘도덕적 자아수용’, ‘도덕적 자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7문항으로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구개발 연구와는 다르게 1문항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3문항은 전혀 새로운 요인으로 신뢰도가 Cronbach's α .60 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서예숙[20]은 Cronbach's α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Cronbach's α .80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Cronbach's α .61~.74였다.

2) 윤리적 민감성

상황적 윤리성을 해석하고 도덕적 행위의 적용을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21]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구조적 설문지[22]를 최도림과 조영선[16]이 번역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였다.

3) 공감능력

다른 사람의 느낌, 의지, 생각 그리고 때로는 유사한 신체동작을 수행할 정도로 움직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거나 대리적으로 체험하는 능력[23]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며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은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비스(Davis) [24]의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변안한 박성희[4] 도구와 이를 사용한 조혜경[25]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총 2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도구개발연구와는 다르게 2문항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준 이하의 요인적재량으로 선행 연구의 4개 하위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6문항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에서 박성희[4]는 Cronbach's α .50~.63이었고, 본 연구는 전체 Cronbach's α .78, 하부요인별로는 Cronbach's α .65~.8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어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연구 참여자에게 클리어 파일 1매를 제공하였다.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남자가 136명(21.8%), 여자가 489명(78.2%)이었으며 1학년이 280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4

학년이 55명(8.8%)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370명(59.2%)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 분석방법으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으로 측정변수의 정상성(normality)을 확인하였고,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과 윤리적 민감성을 예측변수 군으로,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을 기준변수 군으로 하여 이들 간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2016년 9월 29일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내용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방법, 연구 참여 중 중도탈락 자율성, 설문 작성 시 불편감,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개인정보수집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정도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11 ± 0.34 였으며 하부요인에서는 '도덕적 자아수용' (3.19 ± 0.47), '도덕적 자아정체성' (3.08 ± 0.39), '도덕적 자아행동' (3.05 ± 0.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

<Table 1> Moral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Empathy in Subjects (N=652)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Number of item	Cronbach's α
Moral self-concept	3.11±0.34	1.77	4.00	-0.15	0.76	13	0.803
Moral self-identity	3.08±0.39	1.67	4.00	-0.09	0.97	6	0.736
Moral self-acceptance	3.19±0.47	1.50	4.00	-0.48	0.16	4	0.609
Moral self-action	3.05±0.44	1.67	4.00	0.01	0.62	3	0.613
Ethical sensitivity	3.92±0.53	1.00	5.00	-0.72	2.59	28	0.935
Empathy	3.59±0.38	2.30	5.00	0.14	0.46	20	0.775
Perspective taking	3.84±0.53	2.00	5.00	-0.28	0.66	5	0.824
Do imagine	3.74±0.70	1.40	5.00	-0.22	-0.24	5	0.775
Empathic concern	3.54±0.62	1.00	5.00	-0.14	0.29	5	0.704
Personal distress	3.25±0.59	1.20	5.00	-0.16	0.47	5	0.650

SD : standard deviation.

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92 ± 0.53 이었다. 공감능력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9 ± 0.38 이었으며 하부요인에선 ‘관점취하기’ (3.84 ± 0.53)가 가장 높았고 ‘상상하기’ (3.74 ± 0.70), ‘공감적 관심’ (3.54 ± 0.62), ‘개인적 고통’ (3.25 ± 0.5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예측변수인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윤리적 민감성 간 상관관계는 $r=.14 \sim .53$ 이고 기준변수인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r=-.09 \sim .32$ 로 각 변수 내 다중공선성의 크기는 정준상관분석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예측변수의 하위요인과 기준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와 예측변수의 하위요인들 간($r=.22 \sim .37$), ‘공감적 관심’과 예측변수의 하위요인들 간($r=.19 \sim .21$)에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상하기’는 도덕적 자아수용($r=.06, p>.05$), 윤리적 민감성($r=.07, p>.05$)을 제외하고 예측변수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순 상관성($r=.18 \sim .20$)을 나타내었다. 공감능력 중 ‘개인적 고통’은 예측변수와 모두 유의한 상관성($r=-.04 \sim .04$)을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소,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간의 관계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으로 기준변수 군과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윤리적 민감성으로 구성된 예측변수 군과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산출 가능한 정준상관함수(canonical correlation function)는 모두 4개였다

(N=652)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Moral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and Empathy

	r (p)				
	Moral self-identity	Moral self-acceptance	Moral self-action	Ethical sensitivity	Perspective taking
Moral self-concept					
Moral self-identity					
Moral self-acceptance	.470 (<.001)				
Moral self-action	.529 (<.001)	.291 (<.001)			
Ethical sensitivity					
Ethical sensitivity	.188 (<.001)	.144 (<.001)	.180 (<.001)		
Empathy					
Perspective taking	.374 (<.001)	.249 (<.001)	.340 (<.001)	.219 (<.001)	
Do imagine	.182 (<.001)	.055 (.167)	.200 (<.001)	.072 (.071)	.285 (<.001)
Empathic concern	.194 (<.001)	.200 (<.001)	.214 (<.001)	.195 (<.001)	.228 (<.001)
Personal distress	-.046 (.248)	-.074 (.064)	-.036 (.373)	.042 (.289)	-.087 (.030)
					.138 (.001)
					.189 (<.001)

<Table 3>. 이 중 제1정준상관함수(function 1)의 Wilk's Lambda는 .75 ($F=11.88$, $p<.001$)였고 제2정준상관함수(function 2)의 Wilk's Lambda는 .97 ($F=2.28$, $p=.015$)로 2개 함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정준상관함수의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48로 총분산의 23%를 설명하였고 제2정준상관함수는 .15로 총분산의 2%를 설명하였다.

두 변수군 간의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는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모두 사용가능하

다. 의미 있는 정준부하량의 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은 아직 없고 연구자에 따라 다른 기준 사용이 가능하며 먼저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 난 후 두 변수군 사이에 관계를 해석하는 수준에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정준부하량이 .30 이상일 때 9% 설명력을 가지므로 이를 의미 있는 값으로 간주하였다[27]. 변수군 내의 각 변수와 그 변수가 속해 있는 정준상관함수로부터 계산된 정준변형득점과의 단순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정준부하량[26]을 <Table 4>에서 보면 제1정준함수를 통해 기준 변수군에서

<Table 3> Canonical Variate between Moral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and Empathy

Canonical variate	Can Corr Coeff	Canonical root	Proportion	Eigen value	Wilks' Lambda	F	p
Function 1	0.479	0.229	89.935	0.298	0.746	11.883	<.001
Function 2	0.151	0.023	7.068	0.023	0.968	2.282	.015
Function 3	0.087	0.008	2.330	0.008	0.990	1.534	.190
Function 4	0.047	0.002	0.667	0.002	0.998	1.369	.242

Can Corr Coeff :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Criterion Variable and Predictor variable

Variable	Function 1			Function 2		
	Canonical loading	Percentage L ²	Canonical cross-loading	Canonical loading	Percentage L ²	Canonical cross-loading
Criterion variable						
Perspective taking	-0.909	0.827	-0.435	-0.203	0.041	-0.031
Do imagine	-0.416	0.173	-0.063	-0.654	0.427	-0.057
Empathic concern	-0.598	0.358	-0.052	0.494	0.244	0.023
Personal distress	0.079	0.006	0.004	-0.038	0.001	0.000
Predictor variable						
Moral self-identity	-0.819	0.671	-0.392	-0.334	0.112	-0.050
Moral self-acceptance	-0.605	0.366	-0.091	0.560	0.313	0.049
Moral self-action	-0.781	0.610	-0.068	-0.298	0.089	-0.014
Ethical sensitivity	-0.530	0.280	-0.025	0.401	0.161	0.000

는 관점취하기(-.909), 공감적 관심(-.598), 상상하기(-.416) 순으로 정준상관함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측변수 군에서는 도덕적 자아정체성(-.819), 도덕적 자아행동(-.781), 도덕적 자아수용성(-.605), 윤리적 민감성(-.53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부하제곱백분율(percentage L^2)은 각 변수군 내에서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 변수군에서는 관점취하기(82.7%), 설명 변수군에서는 도덕적 자아정체성(67.1%)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준교차부하량은 변수군 내의 각 변수와 다른 변수군에서의 정준상관함수의 정준변형점과의 단순상관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변수군 간의 변수 모두를 고려했을 때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보수적인 기준이다[26]. 정준교차부하량을 통해서 나타난 두 변수군 간의 관계가 정준부하량의 결과와 크기만 다를 뿐 방향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제1함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관계 패턴은 도덕적 자아정체성, 도덕적 자아행동, 도덕적 자아수용성, 윤리적 민감성이 낮을수록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상상하기의 공감능력 정도가 낮았다.

제2정준함수에서 나타난 관계 패턴은 예측변수 군에서 도덕적 자아수용성(.560), 윤리적 민감성(.401), 도덕적 자아정체성(-.334)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준변수 군에서는 상상하기(-.654), 공감적 관심(.4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자아정체성은 낮아도 도덕적 자아수용성과 윤리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공감능력 중 상상하기 정도는 낮지만 공감적 관심 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IV. 고찰

본 연구는 일 대학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과 대학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공감능력과 어떠한 관계 패턴인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의 정도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28]이나 임상간호사[20]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 역시 행정학, 경영학, 생화학 등 전공자[16]나 회계학 전공자[22]의 평균값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 대학 가정계열, 간호계열, 보건계열, 사회실무계열의 학생들로 선행연구와는 다른 대상자 구성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대학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 복합적 관계 패턴은 두 개의 유의한 정준함수를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정준상관함수의 설명력이 매우 미미하므로 두 변수군 간의 선형결합 중 상관성이 가장 극대화된 첫 번째 함수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자아정체성’, ‘도덕적 자아행동’, ‘도덕적 자아수용성’이라는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부요인과 ‘윤리적 민감성’은 대학생의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상상하기’와 관련성이 있었다. 비록 음의 방향이지만 관계의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 즉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정체성, 도덕적 자아행동, 도덕적 자아수용성이 낮고, 윤리적 민감성이 낮으면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상상하기의 공감능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엄밀하게 비교하기 어려우나 부분적으로는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가 공감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공감을 매개로 도덕적 행동에 간접효과도 있다는 연구[1]와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공감능력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점[25]과는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도덕적 자아개념은 자신이 인식하는 도덕적 자아상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 또는 규정이다[7]. 따라서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이 도덕적 행동의 일면이라 볼 수 있는 공감능력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 자아개념의 산물인 개인의 도덕적 태도와 행동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련성은 공감능력을 갖추는데 도덕적 자아개념이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한상욱[7]은 이제까지 도덕교육의 도덕성 함양에 실패 원인 중에는 도덕교육이 도덕에 관한 인지발달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도덕적 실천의지를 형성시키지 못한 결함으로 도덕적 자아개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종래의 도덕교육 방식의 개선 없이는 실천 중심의 개인 태도와 행동 성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지 도덕적 지식 습득이 아닌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교육을 통해 도덕적 실천을 자신의 행동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튼튼한 자아개념을 갖춘다면 일상에서 타인의 심리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하고, 상상 속에서 가공인물의 행위, 감정 등에 자신을 전위시켜보며, 불행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공감능력과의 관계는 대학생할 관련 윤리적 민감성도 함께 작용한 결과이었다. 시험, 출석, 과제활동 등 대학생할에서 요구되는 상황적 윤리성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 역시 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련되어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세기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직업의 수는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이 중 전문직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는 선택 동기의 이타성이 공통으로 제시[29]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이타적 동기에 의해 전문직을 선택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 윤리으로써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전문직종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직 윤리교육의 접근은 대체로 실무에서 필요한 윤리적 민감성을 갖는 데 초점이 두어져 왔다[30].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도 생물학 전공자는 실험윤리[21], 간호학전공자는 간호실무[17],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무[30] 상황에서 설정·탐색된 바 있다. 한편 다른 대학교육에 비해 전문직 윤리교육을 강화해온 의과대학에서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31]은 시사점이 있다. 이 주장의 논지는 시험의 부정행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환자, 동료, 보험자, 정부를 대상으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의료윤리교육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부정행위와 같은 학생이 직면하는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윤리적인 해결 경험을 갖고, 나아가 전문직의 문제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윤리적 민감성이란 대학생이 미래 종사할 전문직업의 실무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시험의 부정행위, 과제활동 시 무임승차,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 피는 행위와 같은 대학생할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공공 윤리가 지켜지는 데 역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윤리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직업인의 도덕적 역량으로 확장되기 위한 윤리적 민감성 교육이 더해진다면 공감의 태도 및 능력

을 대학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의 공감능력 중 ‘개인적 고통’은 예측변수 군과의 복합적 관계 패턴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공감능력의 정서적 요인 중 ‘공감적 관심’은 고통 받고 있는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촉발되는 정서적 반응임에 비해 ‘개인적 고통’은 고통 받고 있는 대상을 보고 느끼는 자기 지향적 염려나 근심 등의 정서적 반응이다[4].

박성희[4]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공감의 정서적 요인을 이타행동의 동기와 관련지으며 ‘공감적 관심’에 의해 발생하는 도움행동은 순수한 이타행동으로, ‘개인적 고통’ 정서에 의해 발생하는 도움행동은 이기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가설로 한 연구[32]는 이타행동은 이기적 동기에 해당하는 ‘개인적 고통’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이타행동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는 데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순수한 이타적 관심에서 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는 이타행동의 원천으로서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윤리적 민감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동기화된 당혹스럽고 귀찮은 느낌의 ‘개인적 고통’과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도덕적 자아개념이나 대학생생활관련 윤리적 민감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교육 내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을 튼튼하게 보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 운영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는 사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인성 함양’이란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

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2015.7)에 따라 아마도 의무적 혹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인성 함양을 위한 시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학생 시기에 적합한 인성교육이란 무엇일까? 성인초기로서 대학생은 사회 내 한 사람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다원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가치 및 규범, 시민적 덕목,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능동적 참여의식, 다양성을 인정한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의 창출방법 등의 시민문화[33]를 이끌어갈 교양시민으로서 자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시민사회의 공공선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양시민이 추구하는 바로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정의한 인성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 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튼튼한 도덕적 자아개념으로 보정된다면 인성이 갖춰진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대학 교육 목적과 공감능력 향상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생활의 분위기 내지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윤리적 민감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고 개선될 수 있으며,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및 문제에 대한 노출을 통해 배울 수 있다[21]. 이러한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는 미래 직면할 전문직 실무를 가상함으로써 가능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학생생활의 강의실 안과 밖, 부가적인 과제활동, 시험과정,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대학생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 상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엄정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낮추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기관의 관용’이 대학생 도덕발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31]는 점과, 대학생의 원칙주의적인 윤리 풍토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 민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34], 나아가 조직사회 안에서의 원칙주의에 입각한 윤리풍토가 구성원 개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5]를 볼 때 대학생활에서 원칙 중심의 분위기 및 풍토 조성이 개인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대학 내에서 원칙중심의 분위기는 도덕적 자아개념을 보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적 민감성처럼 도덕적 자아개념 역시 확정적이고 변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기심을 줄이는 고통을 넘어서, 타자의 복지를 배려하고 위하는 것을 자신의 실제 행동원칙으로 수용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7]. 따라서 대학생활을 통한 다양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득한 타자를 배려하는 역할이 자아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해진 규칙이나 지침을 지키려는 대학풍토는 개인이 가진 이기심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어 튼튼한 도덕적 자아개념의 성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편의 표집된 연구대상자에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간 관계패턴의 결과는 각 개념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련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개념의 관련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송은혜, 조규판.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 자기 통제력, 공감 및 도덕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 13(3) : 23-44.
- 2) 박정호. 대학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의 의의: 경쟁과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시대와 철학 2011 ; 22(2) : 137-166.
- 3) 네이버 국어사전. 공감. Available fro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79200> [cited 2017 Mar 6]
- 4) 박성희. 공감과 친사회 행동. 서울 : 문음사, 1997.
- 5) Hart D, Fegley S. Prosocial behavior and caring in adolescence: relations to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judgment. Child Dev 1995 ; 66(5) : 1346-1359.
- 6) Blasi A.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 Bull 1980 ; 88(1) : 1-45.
- 7) 한상욱. 도덕교육과 도덕적 자아개념. 사회와 교육 1997 ; 24(1) : 221-231.
- 8) Rest JR. Morality. eds by Mussen PH, Flavell JH, Markman 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ew York : Wiley, 1983 : 556-629.
- 9) Ersoy N, Gündoğuş Ümit N. A study of the ethical sensitivity of physicians in Turkey. Nurs Ethics 2003 ; 10(5) : 472-484.
- 10) 권복규.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6 ; 9(1) : 60-72.
- 11) 강명옥. 간호대학생의 자아인식, 타아인식 및 공감간의 관계. 한국철학논집 2015 ; 47 : 207-238.
- 12) 김성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과 공감 발달. 교육학연구 2003 ; 41(3) : 167-190.
- 13) 이지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및 인생 태도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012 ; 20(2) : 113-122.
- 14) 정혜선, 이기령.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2 ; 14(5) : 2635-2647.
- 15) 전민영, 유상호, 박훈기. 의과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의학교육 2015 ; 27(4) : 283-290.
- 16) 최도림, 조영선. 윤리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1 ;

- 10(2) : 61-84.
- 17) 김명숙.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5 ; 21(3) : 382-392.
- 18)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등. 간호연구와 통계 분석. 서울 : 수문사, 2009.
- 19) 정원식. 자아개념검사요강. 서울 : 코리안테스 팅센터, 1968.
- 20) 서예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자아개념.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4.
- 21) Clarkeburn H. A test for ethical sensitivity in science. J Moral Educ 2002 ; 31(4) : 439-453.
- 22) Ameen EC, Guffey DM, McMillan JJ.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ethical sensitivity of future accounting professionals. J Business Ethics 1996 ; 15 : 591-597.
- 23)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 학지사, 2010.
- 24) Davis MH.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 Brown & Benchmark, 1994.
- 25) 조혜경.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윤리풍토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 26) 이영준. 정준상관분석의 이해. 서울 : 석정, 2002.
- 27) Munro BH.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Research. 이은현, 정영해, 김진선 등 역. 보건통계분석. 서울 : 군자출판사, 2002.
- 28) 김미옥, 김경숙.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5 ; 18(4) : 478-490.
- 29)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등.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 현문사, 2016 : 146-151.
- 30) 최명민.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9 ; 61(4) : 381-402.
- 31) Glick SM. Cheating at medical school: Schools need a culture that simply makes dishonest behaviour unacceptable. BMJ 2001 ; 322 : 250-251.
- 32) 조효진, 손난희.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2006 ; 7(1) : 1-9.
- 33) Ehrenberg J. Civil Society: The Critical History of an Idea. 김유남, 주미영, 이상환 역.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서울 : 아르케, 2002.
- 34) 이원섭, 김지태. 특수체육 전공자들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12 ; 20(1) : 1-13.
- 35) 고옥. 윤리적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and Empathy in College Students*

KIM Jimée**,***, HONG Sung-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 self-concept (MSC), ethical sensitivity (ES), and empathy in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625 college students in one city in Gyeonggi-do,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using PASW Statistics 18.0. The mean score for MSC was 3.11 ± 0.34 ; ES and empathy were 3.92 ± 0.53 , 3.59 ± 0.38 , respectively. The complicated correlations between MSC, ES, and empathy were identified. The canonical variate indicated that the subjects had lower “moral self-identification,” “moral self-acceptance,” “moral self-action” ; and “ES” showed lower “perspective taking,” “do imagine,” and “empathic conc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strategies to nurture MSC, ES, and empathy in Korean college students.

Keywords

morals,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empathy, colleg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7 Dongnam Health University Research Fund.

**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